

# 황진이 일화의 주제소 연구

- 모본(母本) 자료를 중심으로 -

김 영 미(전북대)

##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3.3. 여성적 수사의 확대; 유혹하는 여성       |
| 2. 황진이 관련 문헌과 모본 텍스트                | 3.4. 정치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인 여성         |
| 3. 모본 설화의 서사 구조와 주제소                | 4. 맺음말-황진이에 대한 다양한 호명(呼名)과 환기력 |
| 3.1. 남성적 수사; 척당임협인(倜儻任俠人)과 이인(異人)   |                                |
| 3.2. 여성적 수사와 무성적 수사의 혼재; 절색과 고결한 선녀 |                                |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황진이 일화가 실려 있는 중요 모본 텍스트의 서사 구조를 정리하고 각각의 주제소를 알아보았다. 1500년대부터 구한말까지 이어진 고전 문헌들 속 황진이 일화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동소이하지만 화제적(話題的) 측면에서 보면 작자나 편찬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완전히 다른 황진이를 그려내고 있다. 가장 초기의 기록으로 보이는 허균의 「성용지소록」이나 유몽인의 『어우야담』에서 황진이는 걸걸하고 뜻이 크며 기개가 있는 남성적 성격의 척당임협인(倜儻任俠人)으로 주제화된다. 또한 당대 시각에서 볼 때 전형적인 여성의 모습을 뛰어넘는 일탈적인 일화들을 통해 이인(異人)으로 주제화되고 있다. 이덕형의 『송도기이』에서 황진이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육체성이 담보되는 기생 신분이지만 기생스럽지

얇은 조신한 모습의 모순적 이미지, 꾸미지 않고 화장기 없는 무채색(無彩色)의 천연스러운 ‘선녀’ 이미지가 토픽으로 드러난다.

이덕형 이후 후대 문헌 자료에서는 황진이는 육체성이 강화되면서 유혹하는 여인, 사대부의 허울을 벗기고 조롱하는 이미지로 표현되기도 한다. 한편 김택영의 전(傳) <황진>에서는 유교적 이념 안에서 스스로를 경계하는 황진이의 모습이 형상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황진이는 하나의 이름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험녀, 이인, 명기, 절창, 절색, 천재, 선녀, 도인, 시인, 화려한 사람, 담박한 사람, 남성을 조롱하는 여성, 유혹하는 여인 등으로 다양하게 호명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황진이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며 매력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호명은 결국 문학적·문화적 환기력을 자극하여 현대에도 끊임없이 소설, 드라마, 영화, 만화, 뮤지컬 등으로 황진이를 재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핵심어 : 황진이, 척당임협(倜儻任俠), 이인(異人), 선녀, 유혹하는 여성, 다양한 호명, 환기력

## 1. 들어가며

황진이 이야기는 기록상으로 1500년대 허균과 유몽인에게서 시작되어 구한말 김택영(1850-1927)까지 줄기차게 이어져 다양한 문헌 속에서 변형되기도 하고 확대 혹은 축소, 재생산된다. 그리고 거의 공백 없이 1940년대 이태준의 현대소설로 이어졌고 이후 현대의 여러 작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소설 작품으로 창작되었다.<sup>1)</sup> 또한 황진이 이야기는 소설이라는 장르를 넘어 드라

1) 이태준의 『황진이』가 1936년 6월 2일부터 <조선중앙일보>에 연재되고 1946년 단행본으로 출간된다. 이를 기점으로 황진이 이야기는 일화적 성격에서 소설의 세

마나 영화, 만화, 뮤지컬 등으로 제작되어 사랑받았으며 때로 황진이는 브랜드로 기능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황진이가 시대를 통틀어 이렇듯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요소가 무엇일까라는 기본적인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그런데 황진이 이야기가 문단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것에 비하면 황진이 일화 전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의외로 소략하다.<sup>2)</sup> 그나마 황진이 관련 연구는 주로 현대문학 쪽에서 담당하였고 고전문학 쪽 연구는 현대문학에 비해 미약한 편이다. 현대문학 쪽에서는 황진이 설화의 현대문학적 수용양상이나 역사적 인물 ‘황진이’의 현대적 변모양상, 황진이 관련 개별 작품 연구, 작가들 간의 비교 연구, 황진이의 여성성과 사랑에 관심을 가진 논문, 역사성과 그것을 수용하는 허구성의 작용 등을 다루고 있다.<sup>3)</sup>

---

계로 넘어간다. 이태준 이후 정환숙의 『황진이』(정음사, 1955), 박종화의 「황진이의 역천」(《새벽》, 1955. 11), 안수길의 『황진이』(홍문각, 1977), 정비석의 「옛날옛적에 한 여자-옷을 벗은 황진이」(남향문화사, 1982), 최인호의 「황진이」(동화출판공사, 1986), 김탁환, 『나, 황진이』(푸른역사, 2002), 홍석중, 『황진이』(문학예술출판사, 2002), 전경린, 『황진이』(이룸, 2004) 등 우리 문단에서는 끊임없이 황진이가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김병길(「‘황진이’ 설화의 역사소설화와 그 계보」 『동방학지』 147집, 연세대 국학연구회, 2009, 491면)에 따르면 황진이 설화를 모티프로 한 소설은 총 19편 정도 된다고 한다.

- 2) 황진이 관련 자료들은 장시광의 「황진이 관련 자료」(『동방학』 3집, 1997)에서 종합적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이 자료들 전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다. 본 연구는 개별문집이나 그에 대한 번역본도 참조하였지만, 기본적으로 한국고전DB db.itkc.or.kr/와 장시광의 논문에서 소개된 원문자료와 번역이 토대가 되었음을 밝힌다.
- 3) 현대문학 쪽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졌던 연구는 개별 작가의 작품 연구이며 다음으로 개별 작가의 작품 연구에서 한 걸음 나아가 작가들 간의 비교 연구도 성행했다. 「‘황진이’ 서사를 다룬 남과 북의 역사소설, 그 허구적 진실」(고명철, 2009) 같은 논문이나 『살아 있는 신화, 황진이』(김재용, 2006) 속의 단편 논문들은 대부분 이런 부류에 속한다. 또한 설화의 문학적 수용과 변이, 현대적 변모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황진이를 분석한 일련의 연구들이 있다. 황진이의 재생이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황진이의 여성성과 사랑을 탐구하기도 하고 재생산의 메커니즘을 탐구하기도 했다(김병길, 2010; 김미영, 2007). 한편 문학과 대중문화의 경계에서 바라본 황진이 연구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이현경,

고전문학 쪽의 황진이 연구는 대체로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황진이가 남긴 시조 및 한시 등 개별 작품을 분석하거나 다른 작가의 작품과 비교 분석한 연구다. 윤재철(1994), 정영문(1999), 노인숙(2001), 유육례(2014), 김태봉(2014), 이순희(2014), 장만식(2015), 이화영(2016) 등의 연구가 여기에 해당된다.<sup>4)</sup> 둘째, 기녀담이나 방외인문학에 포함시켜 부분적으로 황진이 일화를 다룬 연구다.<sup>5)</sup> 어느 쪽이든 황진이 일화를 전면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개별적으로 황진이의 한시나 시조 자체를 분석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다. 하지만 황진이 시들 속에는 늘 이야기가 함께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야기 없는 황진이 시들은 그 의미가 퇴색되기 쉽다. 황진이 관련 여러 일화들은 단순한 흥밋거리를 넘어 16세기에서 구한말까지 여러 작가, 편찬자들의 의식세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황진이 관련 일화들은 어느 하나의 문헌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니다. 고전의 여러 야담과 패설류에 산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몇몇 모본(母本)<sup>6)</sup> 텍스트 속의 일화들은 후대에 전승되면서 편찬자의 입맛에 따라 취사 선택되어 서로 다른 주제를 형성한다. 심하게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황진이에 대한 형상화는 완전 달라지기도 한다. 예컨대 유몽인의 『어우야담』 속의 황진이와 이덕형의 『송도기이』 속의 황진이는 전혀 다른 인물처럼 보인다.

2007; 신원선, 2007; 신익철, 2006; 이현경, 2007;).

- 4) 윤재철, 「황진이 연구」, 『청람어문교육』12, 1994; 정영문, 「황진이의 시 세계」, 『동방학』 5, 1999; 노인숙, 「황진이 한시 연구」, 『청람어문교육』 23, 2001; 유육례, 「황진이의 연정시 연구」, 『은지논총』41, 2014; 이순희, 「이병기 시조와 황진이 시조의 비교 고찰」, 『시조학논총』 40, 2014; 장만식, 「황진이의 작품 속에 내재된 트라우마와 욕망 탐색」, 『열상고전연구』 45, 2015; 김태봉, 「황진이 한시와 중국시 비교」, 『중국학보』 75, 2015; 이화영, 「황진이와 설도의 한시에 나타난 세계인식의 변별성」, 『우리문학연구』52, 2016.
- 5) 조광국, 『기녀담 기녀등장 소설연구』, 월인, 2000, 123-145면; 윤주필, 『한국의 방외인문학』, 집문당, 1999, 430-439면.
- 6) 기존에 없었던 일화가 최초로 출현하는 고전 문헌을 ‘모본(母本)’으로 이른다.

이것이 바로 각 일화들의 변별성과 특수성, 서사구조에 노정되어 있는 화제(話題, topic)에 세심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에 본고는 여러 고전 문헌 자료, 특히 모본 문헌 속에 있는 황진이 관련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일화들의 주제소를 알아보려고 한다.

## 2. 황진이 관련 문헌과 모본 텍스트

황진이 관련 이야기는 16세기 허균, 유몽인 등의 문헌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여 사실성(史實性, historicity)과 허구성(fictionality)이 뒤섞이면서 반복 재생, 축소, 확대, 변이, 굴절되며 구한말까지 여러 문헌에 수록된다. 다음은 황진이 관련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의 문헌을 정리한 것이다.

작가	생몰 연대	출전 문헌	비고
유몽인(柳夢寅)	1559 - 1623	『어우야담(於于野談)』	
임제(林悌)	1549 - 1587	『백호집(白湖集)』	
허균(許筠)	1569 - 1618	『성소부부고』 <sup>24</sup> 「성옹지소록(惺翁識小錄) 下」	
이덕형(李德涇)	1566 - 1645	『송도기이(松都記異)』 『죽창야사(竹窓野史)』	
정재륜(鄭載崙)	1648 - 1723	「공사견문록(公私見聞錄)」	정재륜은 효종의 사위
임방(任防)	1640 - 1724	『수촌만록(水村漫錄)』	*홍민중 『사회총림』 수록
김시민(金時敏)	1681 - 1747	『조야휘언(朝野彙言)』	

홍중인(洪重寅)	1677 - 1752	『동국시화휘성(東國詩話彙成)』	
구수훈(具樹勳)	1685 - 1757	『이순록(二旬錄)』	
이공익(李肯翊)	1736 - 1806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권9, <중종조 고사본말> ‘서경덕’	
이덕무(李德懋)	1741 - 1793	『청장관전서』33 「청비록(淸脾錄)2, <시기(詩妓)>	
김이재(金履載)	1767 - 1847	『중경지(中京誌)』	
서유영(徐有英)	1801 - 1874	『금계필담(金溪筆談)』	
김택영(金澤榮)	1850 - 1927	『송도인물지(松都人物志)』 『소호당문집(韶濩堂文集)』권 14 『송양기구전(崇陽耆舊傳)』부록	
편자미상	미상	『記聞叢話』권4	*조선말기문헌설화집
편자미상	미상	『靑野談藪』(『한국야담자료집성』4)	*한문에 국문 현토

\* 진하게 표시한 향이 모본 자료

이 중에서 황진이 관련 에피소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문헌들, 즉 모본 자료의 일화들은 다음과 같다.

① 유몽인의 『어우야담』

- ① 황진이에게 흔들리지 않는 화담 서경덕 관련 일화
- ② 금강산을 유람하며 스스로없이 벌어먹는 이야기
- ③ 이사종과 6년 계약 결혼한 이야기
- ④ 화려한 것을 좋아하니 큰길가에 문으라는 유언
- ⑤ 임제가 진이의 무덤에 제사 지냈다가 파직당한 이야기

② 허균의 「성웅지소록」

- ① 이언방의 노래 실력을 알아본 일화
- ② 남자 같은 성품을 지닌 일화
- ③ 화담 서경덕과 지족선사 이야기

- ④ 죽음에 임하여 곡하지 말고 복치고 노래하라는 유언
- ⑤ 송도삼절

③ 이덕형의 『송도기이』 『죽창야사』

- ① 현금이 진량을 낭게 된 경위
- ② 유수 송공 관련 이야기
- ③ 화담 서경덕 관련 이야기
- ④ 이덕형이 진량 이야기를 들은 내력

④ 임방의 『수춘만록』

- ① 양곡 소세양 관련 일화(소세양에게 준 한시 <贈別蘇判書世讓> 등장)

⑤ 구수훈의 『이순록』

- ① 벽계수 이야기(기존 벽계수 이야기가 아닌 소세양 패러디 유형, '청산리 벽계수' 시조 등장)

⑥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 ① 황진이를 여우라고 생각한 선비

⑦ 김이재의 『중경지』

- ① 진이의 <박연시><sup>7)</sup>

⑧ 서유영의 『금계필담』

- ① 벽계수 이야기

⑨ 김택영의 『소호당문집』

- ① 황진이가 기생이 되기 전에 황진이를 사모하다 죽은 서생 이야기
- ② 만월대에 올라 회고한 시[등만월회고], 반달을 읊은 시[영반월] 등장
- ③ '죽으면 큰길가에 버려 천하의 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경계하게 하라'는 유언

⑨ 작자미상의 『청야담수』

- ① 이이, 정철, 유성룡을 평가

---

7) <박연시>가 등장하는 것 외에 특별한 일화가 없어서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황진이 일화는 주로 야담집, 시화집, 설화집, 인물지, 읍지 등에 실려 전해 오는 것을 볼 수 있다.<sup>8)</sup> 이 중에서 유몽인의 『어우야담』, 허균의 「성옹지소록」, 이덕형의 『송도기이』·『죽창야사』, 임방의 『수춘만록』, 서유영의 『금계필담』, 김택영의 『송도인물지』, 작자 미상의 『청야담수』 등의 이야기는 중요한 모본 자료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없었던, 또는 새로운 정보나 이야기가 추가된 황진이 일화가 이들 문헌에 최초로 등장한다.

유몽인의 글에서는 화담 서경덕 관련 일화, 금강산 유람 일화, 선전관 이사종 관련 일화, 임제 관련 이야기들이 최초로 등장하며, 허균 글에서는 황진이 어머니가 ‘개성의 눈먼 여자’라는 정보, 지리산 여행, 서경덕과 지족선사 관련 일화 등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이덕형 글에서는 황진이 부모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소개되어 있고, 서유영의 『금계필담』에서 비로소 ‘벽계수’가 등장하며, 임방이나 김택영 글에서 ‘소세양’이, 편자 미상의 『청야담수』에서는 율곡, 송강, 서에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들 문헌 외에 나머지 문헌들에 나타나는 황진이 이야기는 모본 자료의 이야기가 재생산되거나 확대 혹은 축소, 변형되어 창작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유몽인, 허균, 이덕형의 문헌은 황진이 이야기가 양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적실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1550년대 인물이었던 유몽인·허균·이덕형은 황진이와 비교적 가까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황진이 이야기가 구전·변용되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허균 같은 이는 서경덕의 제자였던 아버지 허엽(許曄, 1517-1580)을 통해 황진이에 대해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덕형은 자신이 개성 유수로 갔을 때 황진이의 친척 노인으로부터 직접 그녀에 대해 들었다고 술회하고 있는 것을 보면<sup>9)</sup> 당시에는 황진이의 이야기가

8) 각 문헌들의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야담과 패설류, 잡록 등의 글에 실려 있다. 정통 개인 환문 문집인 경우에도 잡록적인 성격의 글들을 모아 놓은 부록에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황진이 이야기가 갖는 구전성과 창작성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9) 이덕형은 『송도기이』에서 ‘1604년 갑진년(甲辰年)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다.

살아 있는 사람들을 통해 직접 구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어우야담』, 「성옹지소록」, 『송도기이』·『죽창야사』에 실려 있는 황진이 이야기는 문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료적 가치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정리해 보면 황진이 관련 일화는 허균, 유몽인, 이덕형 문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후에는 다양한 문헌에 황진이 일화가 전하지만 보통은 기존의 이야기가 첨가, 확대, 축소, 변이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후대로 갈수록 황진이 이야기는 사실성(史實性)보다는 허구적이고 대중적인 코드로 바뀌어 가면서 황진이의 ‘미모’가 강조되거나 미모를 경계하는 교훈적인 이데올로기가 추가되기도 한다.

황진이 이야기는 오랜 기간 많은 이들을 통해 면면히 이어져 왔는데 이는 황진이 이야기가 그 자체로 여러 측면에서 호기심과 흥미를 제공하는 것들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모본 자료를 중심으로 황진이 일화들의 서사 구조를 분석하고 그것의 주제소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 3. 모본 설화의 서사 구조와 주제소

야담의 서사는 화제(話題, topic)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화제란 경계가 일정 정도 한정된, 하나의 시퀀스로 묶을 수 있는 에피소드들의 계열적 집합체의 주제소(主題素)를 말한다. 특정 화제를 중심으로 일화들을 나열하여 배치하는 것은 야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 중 하나이다.<sup>10)</sup> 대표적으로 황진이 이야기가 다수 출현하는 최초의 야담집 『어우야담』은 그 어떤 야사적 이야기보다 화제적 나열 방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11)</sup> 본

10) 특정 화제를 중심으로 일화들을 나열하는 화제적 구조는 구술문자 시대의 한 특징인데 구술문화에서는 기억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사건의 중심’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구술의 길다란 내러티브에 접근하는 데 불가피한 플롯 방식이다.(윌터 J.옹 지음/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216면)

장에서는 모본 자료들의 서사 구조를 분석하고 일정하게 수렴되고 있는 주제소를 찾아본다.

### 3.1. 남성적 수사<sup>12)</sup>; ‘척당임협인(倜儻任俠人)’과 이인(異人)

이 유형의 이야기는 황진이를 호협(豪俠)한 남성적 인물이나 이인(異人)으로 그리는 이야기 군으로, 황진이 설화군에서 양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초창기 문헌인 허균의 「성웅지소록」과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집중적으로 드러나는데 그 일화들의 서사 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우야담』<화담 서경덕 관련 이야기>

- ① 송도의 명창 진이는 척당임협인(倜儻任俠人)이다.
- ② 화담 서경덕이 뜻이 높아 벼슬하지 않으며 학문이 정밀하다는 말을 듣고 그를 시험하고자 찾아갔다.
- ③ 진이가 밤을 틈타 선생을 유혹하였지만 화담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어우야담』<금강산 유람 이야기>

- ① 진이는 금강산이 천하의 제일 명산이라는 말을 듣고 청유(淸遊)하고자 했으나 함께 갈 사람이 없었다.
- ② 그때 재상의 아들인 이생은 사람됨이 질탕하고 소탈해서 함께 방외지유(方外之遊)를 할 만했다.
- ③ 이생을 설득해서 금강산 유람을 떠나면서 이생으로 하여금 동복을 수행

11) 김영미, 『기간과 유몽인의 산문』, 태학사, 2008, 271~328면.

12) ‘남성적 수사’라는 용어는 이능화의 『조선해어회사』(동문선, 1992, 335~340면)와 김경연의 「황진이의 서사적 변형과 생산에 관한 고찰」(『동남어문논집』 21, 2006, 10면)에서 가져온 것으로 황진이의 남성적인 성격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데 사용된 표현들을 광범위하게 지칭한다. 본고에서 ‘남성적 수사’란 남성적인 성격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대 문학 속에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여성의 모습을 뛰어넘는 수사나 황진이의 일탈적 행동을 표현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하지 못하게 하고 배옷과 초립 차림에 직접 배낭을 지게 했다.

- ④ 진이 자신은 송라로 만든 둥근 모자를 쓰고 적삼을 걸치고 베치마를 입고서 짚신을 끌고 땃가지를 지팡이 삼아 금강산에 속속들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 ⑤ 절에서 음식을 빌어먹기도 하고 스스로 몸을 팔아 중에게 양식을 취하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점점 굶주려서 초췌해졌다.
- ⑥ 한 시골 유생들의 잔치 자리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음식을 얻어먹고 이생도 얻어 먹었다.
- ⑦ 진이와 이생 양쪽 집안에서는 이들이 간 곳을 모르고 있었는데 1년 남짓 만에 해진 옷과 시커먼 얼굴로 돌아오자 이웃에서 그들을 보고 크게 놀랐다.

『어우야담』<선전관 이사종과의 6년 계약 결혼>

- ① 선전관 이사종은 노래를 잘했다.
- ② 일찍이 사신으로 송도를 지나다가 천수원 냇가에서 노래 몇 곡을 하였다.
- ③ 마침 진이가 그 노랫소리를 듣고 절창 이사종임을 알아보았고 정성을 다해 집으로 모셨다.
- ④ 며칠 후에 진이는 이사종에게 6년 계약 결혼을 제안한다.
- ⑤ 처음 3년 동안은 진이가 이사종 일가를 먹여 살렸다.
- ⑥ 나머지 3년은 이사종이 진이 일가를 먹였다.
- ⑦ 6년이 지나자 서로 작별하고 떠났다.

『어우야담』<진이의 죽음>

- ① 진이가 병들어 장차 죽게 되었을 때 집안사람들에게 자신은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으니 죽은 뒤에 산골에 장사 지내지 말고 큰길가에 장사 지내라고 하였다.
- ② 지금 송도의 큰길가에 진이의 묘가 있다.
- ③ 임제(林悌, 1549-1587)가 송도를 지나다가 진이의 묘에 제사를 지냈는데 조정의 비난을 입었다.

「성웅지소록」<이언방을 알아본 진랑>

- ① 이언방이라는 사람이 노래 실력이 뛰어났다.
- ② 일찍이 이언방이 서경을 유람하며 기생들과 뛰어난 노래로 화답했다.
- ③ 송도의 창기 진랑이 그가 노래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의 집을 내방하였다.
- ④ 이언방이 거짓으로 자신을 아우라고 속이고 한 곡조를 불렀다.
- ⑤ 진랑은 그가 이언방임을 알아보았다.

「성웅지소록」<남자 같은 성품의 진랑>

- ① 진랑은 개성의 눈먼 여자의 딸로, 성품이 척당하여 남자 같았으며[倜儻類男子] 가야금을 잘 타고 노래를 잘 불렀다.
- ② 금강산에서부터 태백산과 지리산, 금성까지 노닐었다.
- ③ 화려한 기생들이 가득한 고을 잔치 자리에서 진랑은 해진 옷과 때 낀 얼굴로 태연하게 이를 잡고 가야금을 타며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 ④ 화담 서경덕의 인물을 사모하여 함께 노닐었다.
- ⑤ 삼십 년 면벽 수양한 지족선사를 무너뜨리고 오직 화담선생만을 참성인이라 말하곤 하였다.
- ⑥ 진랑은 자신의 죽음에 곡을 하지 말고 복치고 노래 부르라고 유언하였다.
- ⑦ 서술자 평: 지금도 진랑이 지은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진랑은 ‘이인(異人)’이다.

「성웅지소록」<송도삼절>

- ① 진랑이 화담 서경덕에게 송도삼절은 박연폭포와 화담선생과 자신이라고 말했다.
- ② 서술자 평: 화담은 이학(理學)의 최고봉이며 진랑 또한 여자 가운데 빼어나니 일리 있는 말이다.

유몽인의 『어우야담』 소개 일화들은 황진이와 기본 성격은 ‘척당임협인(倜儻任俠人)’으로 제시하고 있다. 척당(倜儻)은 사소한 데에 속박되지 않거나 뜻이 크고 기개가 호방한 것을 나타낸다. 임협(任俠)은 의협심이 강하고

정의감이 있으며 믿음과 의리가 있다는 사전적 의미 외에도 예술적 재능과 식견을 상징하기도 한다.<sup>13)</sup> ‘척당임협’과 관련하여 유몽인은 <화담 서경덕 관련 이야기>, <금강산 유람 이야기>, <선전관 이사종과의 6년 계약 결혼>, <진이의 죽음> 일화들을 배치하고 있다.

먼저 황진이의 <금강산 유람 이야기>는 어떤 일화보다 독특하다. 황진이는 금강산이 천하제일 명산이라는 말을 듣고 청유(淸遊)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는 당시 여성의 관심사가 규방과 가족에 한정되어 있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황진이가 아무리 기생 신분으로 규방에 갇혀 있었던 인물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몸으로 금강산을 청유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이탈적이다. 더욱이 함께 유람할 인물로 사람됨이 ‘질탕하고 소탈해서 방외지유(方外之遊)’를 할 만한 이생을 선택한 것이나 동복을 수행하지 않고 직접 옷과 양식을 지고 지팡이를 짚고 금강산을 유람한 것, 스스럼없이 양식을 얻어먹는 모습 등은 척당임협을 대표적으로 실천한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세 계급사회가 규정한 여성적 규범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청유(淸遊)’나 ‘방외지유(方外之遊)’를 통해 ‘척당’의 남성적 기질을 보여주고 있다.

허균의 「성용지소록」<남자 같은 성품의 진랑>에서 황진이에 대한 남성적 수사는 더욱 강화된다. 허균은 이 일화에서 황진이가 금강산뿐만 아니라 태백산, 지리산, 금성 등 산수 유람을 즐겨 하는 모습을 개성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산수 유람은 일찍부터 남성 선비들이 수양이나 성찰을 하기 위해서, 또는 산수와 인간의 조화 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혹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서 울분을 달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곤 했다. 어떤 목적이든 산수 유람은 보통 사대부 남성들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는데 황진이가 여성의 몸으로 여러 명산들을 유람한 것은 대단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3) 「조선후기 산문에 나타난 ‘俠’의 의미」(정순희, 『문학이론과비평』 30, 2006, 297-320면)에서 남성의 ‘협’은 신실함과 의로움을 직접 부각시키는 데 반해 여성 ‘협’의 경우에는 예술적 재능과 식견, 그것을 중심으로 한 만남을 드러내는 데 치중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런 모습에 대해 허균은 황진이를 ‘척당불기(倜儻不羈)하여 남자 같은 성격’이라고 압축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몽인의 <선전관 이사종과의 6년 계약 결혼>에서 황진이는 절창 이사종을 알아보고 6년 계약 결혼을 제안한다. 각각 3년씩 서로를 먹여 살리고 약속한 기한이 끝나자 어떠한 미련도 두지 않고 헤어지는데 이 대목도 전형적인 여성스러움을 드러내는 서사는 아니다. 무엇보다 계약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일상적이지 않다. 또한 남녀의 만남과 헤어짐에 별다른 구애를 받지 않는 것도 일반적으로 고전문학 속에서 정에 연연하는 여성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리고 있다. 이 역시 ‘임협’의 호쾌한 남성적 기질의 연장선상에서 서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화담 서경덕 관련 이야기>에서도 황진이에 대한 외모적 표현은 문맥 사이에 숨겨져 있고 대신 시험자로서 황진이의 모습을 부각시킨다. 황진이는 화담의 덕이 높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학문이 얼마나 정밀한지 ‘시험하고자’ 한다. 허균의 <남자 같은 성품의 진랑>에서 황진이는 화담의 덕을 사모하여 화담 서경덕과 노닐며 그를 ‘참성인’이라고 평가한다. 대학자 서경덕을 시험하고 그를 평가하고 노니는 것은 보통의 여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 일화들 역시 황진이의 ‘척당불기’의 남자 같은 성격을 부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화담 관련 일화는 후대 많은 문헌에서 변주되어 전승되는데 후대의 이야기들과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후대의 이야기들이 주로 황진이 같은 절색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은 ‘화담의 고고한 덕’을 칭송하는 쪽으로 주제화되는 반면 『어우야담』이나 「성웅지소록」 소재 화담 서경덕 이야기는 황진이의 ‘시험’과 높은 덕을 존경할 줄 아는, 즉 참성인을 알아볼 줄 아는 ‘황진이의 안목’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황진이의 안목과 식견은 사람을 알아보는 지인지감으로 연결된다.

<선전관 이사종과의 6년 계약 결혼>에서 황진이는 노래를 잘하는 절창 이사종을 알아보았다. 사랑과 결혼을 이야기하는 이사종과의 일화에서도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수사를 사용하지 않고 가창 실력을 전면에 내

세운 것이다. 또 <이언방을 알아본 진랑>에서는 이언방의 트릭에도 이언방의 노래를 알아본다. 시험을 하는 쪽은 이언방이며 황진이는 시험을 당하는 모습인데 황진이는 이언방이 바로 ‘진기인(眞其人)’이라고 알아본다. 이때 황진이 자신이 이미 가야금을 잘 타고 노래를 잘 부르는[工琴善歌] 예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한다. 이는 단순히 사람을 알아보는 감식안이 아니라 노래를 들을 줄 아는, 노래 실력을 감별할 줄 아는 ‘예인으로서의 감식안’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서 임협(任俠)의 의미에 예술적 재능과 식견을 상징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때 황진이의 가창 실력과 감식안은 ‘척당임협’의 의미망에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화려한 것을 좋아하니 큰길가에 장사지내 달라’(〈진이의 죽음〉)는 것이나 자신의 죽음에 곡을 하지 말고 복치고 노래를 부르라는 유언(〈남자 같은 성품의 진랑〉)에서는 호방하면서도 초월적인 도인의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이에 허균은 <송도삼절>에서 황진이를 여자 가운데 빼어난 인물임을 인정하고 있다. 최립의 문장, 차친로의 시, 석봉 한호의 글씨를 송도삼절이라고 일컫기도 하였는데 황진이는 화담을 비롯한 차친로, 한호 등과 송도를 대표하는 인물로 인정한 것이다.

황진이는 허균과 유몽인의 일화 속에서 ‘척당임협’하여 구애됨이 없는 남자 같은 여성, 호방하면서도 초월적인 모습을 보이는 여성, 서화담과 나란히 송도삼절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여성, 식견을 갖춘 지인지감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모습 때문에 허균은 최종적으로 황진이를 ‘이인(異人)’으로 평가하게 된다. 다만 황진이를 ‘이인’으로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녀들이 연마해야 하는 ‘工琴善歌’의 재능 때문이 아니라 ‘倜儻類男子’ 같은 성격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허균이나 유몽인은 여러 일화들을 통해 황진이를 남성적인 호협한 인물로 주체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남성적 호방한 성품의 여성상은 당대는 물론 조선 시대 여성 인물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낯설음 덕분에 황진이에 대해 ‘이인’이라는 모호한 규정이 필요했고 바로 이러한 모호함이 오히려 황진이 매력에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어우야담』을 모본으로 하고 있는 후대 자료로는 『백호집(白湖集)』, 『동야회사』, 『기문총화』 등이 있는데<sup>14)</sup> 『동야회사』에는 화담 서경덕 관련 삽화와 죽음에 관련 삽화가, 『기문총화』에는 서화담 관련 내용만 실려 있다. 임제의 『백호집』에는 유몽인이 주제화하고 있는 ‘척당임협’을 ‘여협(女俠)’으로 직접 제시하고 있다. 다만 ‘여협’을 증명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화는 생략되고 마지막 임제 관련 부분만 인용하고 있다.

허균의 「성옹지소록」의 일화는 후대 김시민의 『조야회언』, 『기문총화』 4권, 『총화』 등에서 재생산되는데, 『조야회언』의 경우에는 황진이의 척당불기하여 남자 같은 성격을 강조하는 산수유람 부분을 전면적으로 삭제하고 화담 서경덕의 높은 덕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책은 허균이 다룬 일화와 원문이 거의 같되, 모본 설화에서 개성의 눈먼 여자의 딸로 애매하게 처리했던 황진이 신분을 ‘명기(名妓)’로 적시하고 있다.

### 3.2. 여성적 수사와 무성적(無性的) 수사<sup>15)</sup>의 존재; 절색과 고결한 선녀

허균의 「성옹지소록」과 유몽인의 『어우야담』 속에는 황진이에 대한 외모적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가 표면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덕형의 『송도기이』·『죽창야사』에 이르면 황진이에 대한 여성적 아름다움에 대한 수사가 표면화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황진이의 조신함이 강조된다. 이덕형의 문집 속 황진이 일화들의 서사 단락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금이 진량을 낳게 된 사연>

- ① 진이는 송도의 이름난 창기이다.
- ② 진이의 어머니 현금은 자못 자색이 있었다.

14) 장시광, 「황진이 관련 자료」, 『동방학』 3집, 1997, 390면, 396면-397면.

15) 여성적 수사라는 용어는 ‘여성적인 아름다움’, 특히 ‘여성의 외모에 대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수사의 의미로 사용하며 ‘무성적 수사’라는 용어는 육체적이고 성적인 느낌을 제거하려는 표현들을 의미한다.

- ③ 현금이 18살 때 병부교 아래에서 빨래를 하는데 용모가 단정하고 잘생겼으며 의관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남자가 다리 위에 있었다.
- ④ 날이 저물어 다른 사람들이 다 흩어지자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 노래를 길게 했다.
- ⑤ 그 남자가 현금에게 마실 물을 구하여서 현금이 표주박에 물을 담아서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반을 마시고 반을 남겨서 마시라고 하였는데 곧 술이었다.
- ⑥ 현금이 놀라고 이상하게 여겨 이로 인하여 부부의 즐거움을 누리고 진랑을 낳았다.
- ⑦ 진랑은 용모와 재주가 뛰어났고 노래 또한 절창이었으니 사람들이 그녀를 선녀라고 불렀다.

<유수 송공 관련 이야기>

- ① 송공이 처음 정부(政府)에 부임했을 때 마침 명절이라 관청에서 작은 술자리가 있었다.
- ② 이때 진랑이 왔는데 태도가 정숙하고 나긋나긋하였으며 행동거지가 여유풍고 우아했다.
- ③ 송공은 풍류를 아는 사람으로 기생집에서 늙다시피 했기 때문에 진랑을 한 번 보고 그녀가 범상치 않은 여자임을 알아보았다.
- ④ 송공의 첩은 관서 지방에서 이름난 여자였는데 문틈으로 엿보고 진랑이 절색임을 인정하고 미친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
- ⑤ 송공의 대부인 회갑연에 붉은 분칠을 하고 비단 옷을 입은 경성의 기생들이 모였다.
- ⑥ 진랑은 분칠을 하지 않고 담담한 차림으로 와서 참석하였는데 천연스러운 모습이 국색으로서 그 광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 ⑦ 그러나 송공은 진랑을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전 첩처럼 방안에서 엿보는 이가 있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 ⑧ 술자리가 무르익자 진랑에게 독창을 시켰는데 노랫소리가 그윽하고 맑고 뛰어나 송공이 무릎을 치며 ‘천재’라고 칭찬하였다.
- ⑨ 악공 엄수는 나이가 칠십으로 가야금 솜씨가 온 나라 가운데 명수(名手)

였고 음률도 잘 알았다.

- ⑩ 엄수가 진랑을 보고 선녀라고 감탄하고 그녀의 노랫소리를 듣고는 신선  
의 노래라고 감탄하였다.
- ⑪ 명나라 조사(詔使) 일행 중 한 두목이 진랑을 보고는 “너희 나라에도 천  
하절색이 있구나”라고 하였다.

<화담선생 관련 이야기>

- ① 진랑이 비록 창기의 무리에 속해 있었으나 성품이 고결하여 화려하게 꾸  
미는 것을 일삼지 않았으며 질탕한 것을 싫어하여 시정잡배는 돌아보지  
않았다.
- ② 진랑은 유사(儒士)와 교류하는 것을 좋아하였고 문자를 알아 당시(唐詩)  
를 감상하는 것을 즐겼다.
- ③ 서술자 평: 진랑은 화담선생을 경모하여 매양 문화에 나가 뵈었는데 선  
생도 물리치지 않고 더불어 담소하였으니 진랑은 절세의 명기(名妓)이다.

<이덕형이 진랑 이야기를 들은 내력>

- ① 내가 갑진년(1604)에 어사가 되어 본 부에서 서리 진복의 집에 머물렀는  
데 진복의 아버지가 진랑과 가까운 친척이었다.
- ② 진복의 아버지는 당시 나이가 80여 살이었는데 매양 진랑의 일을 말하였다.
- ③ 내가 그 노인에게 진랑이 이술(異術)을 가졌는지 물으니 그것은 모르겠  
지만 방 안에서 이상한 향기가 며칠 동안 없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 ④ 내가 노인에게서 진랑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으므로 이와 같이 기  
록한다.

<현금이 진랑을 낳게 된 사연>을 보면 황진이의 어머니 현금은 ‘자못 자  
색이 있었으며’ 진랑의 아버지는 ‘용모가 단정하고 잘생겼다’고 표현되고 있  
다. 그런 부모를 둔 황진이의 용모는 당연히 뛰어났으며 게다가 노래 또한  
절창이었으니 사람들이 그녀를 ‘선녀’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선녀’의 이미지  
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선녀는 분명 외모적 아름다움을 전제로 하지만 여성  
의 성적인 ‘육체성’을 뛰어넘는다. 이는 <유수 송공 관련 이야기>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유수 송공 관련 이야기>에서 황진이는 송공의 첩의 눈을 통해 ‘절색(絶色)’, ‘국색(國色)’임이 표면화된다. 물론 『어우야담』이나 「성웅지소록」에서도 황진이의 여색은 행간 사이에 함축되어 있었지만 유몽인과 허균은 직접적으로 드러내 놓고 황진이의 ‘여색’이나 ‘미색’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유몽인과 허균이 황진이를 척당임첩의 남성적 성격을 강조한 것에 비교하면 이덕형의 글에서는 확실히 여성적인 아름다운 외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유수 송공 관련 이야기>에서 황진이는 여성이 지닌 절대적 아름다움을 지녔지만 ‘태도가 정숙하고 행동거지는 우아하며’, ‘분칠을 하지 않고 담담한 차림으로 천연스러운 모습이다.’ 또한 <화담선생 관련 이야기>에서는 ‘성품이 고결하여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일삼지 않았으며 질탕한 것을 싫어하여 시정잡배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한다. ‘화려한 것을 좋아해서 큰길가에 묻으라’고 유언했다는 『어우야담』 속 황진이와는 정반대의 조신한 모습을 형상화하여 선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덕형은 절색이지만 담담하고 천연스러움, 고결한 성품 등의 수식을 통해 성적인 유혹의 이미지를 벗어나 ‘선녀’의 이미지를 고착시킨다. 붉은 분칠을 하고 비단옷을 입은 화려한 기생들의 모습과 대비되어 담담한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이덕형은 ‘아름다우면서도 무성적(無性的)인 여성’, 탈성화(脫性化)된 황진이의 모습을 그리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성적 수사 덕분에 황진이는 인간 중의 절색을 뛰어넘어 ‘선녀’ 이미지를 형상화할 수 있다.

<이덕형이 진랑 이야기를 들은 내력>에는 황진이가 머무는 방안에서는 ‘이상한 향기가 며칠 동안 없어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는 황진이에 대한 신비감을 주어 선녀 이미지를 강화한다. 아울러 <현금이 진랑을 낳게 된 사연>, <유수 송공 관련 이야기>에서 노랫소리가 그윽하고 맑고 뛰어나다는 것이나 그녀의 노랫소리를 듣고는 신선의 노래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 등의 진술은 모두 선녀 이미지 강화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송공의 첩은 그녀를 ‘절색’으로, 송공은 ‘국색’, ‘천재’로, 가야금의 명수 악공 엄

수는 진량의 노래를 ‘신선의 노래’로, 명나라 조사는 ‘천하절색’으로 서술하여 황진이를 ‘선녀’의 반열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결한 화담 선생의 인품에 걸맞은 황진이의 이미지가 완성되었다.

여성적인 아름다움이나 매력을 지나치게 환기하는 순간 자칫하면 경국지색, 즉 나라를 망칠만한 절색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요부의 음란함으로 넘어갈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덕형은 여성적인 아름다움과 매력을 환기하면서도 음란하지 않음의 경계에 황진이를 붙잡아 두는 방법으로 황진이의 탈성화(脫性化)를 선택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분칠하지 않은 정숙함과 우아함으로 악녀와 요부에서 벗어났으며 그 아름다움은 ‘선녀’로 평가하여 ‘성녀’로까지 올려놓았다. 정리하자면 ‘절색, 절창’ + ‘정숙, 우아, 고결, 꾸미지 않는 천연스러움’ → ‘선녀’ 공식을 성립시키고 있는 것이다.

### 3.3. 여성적 수사의 확대; 유혹하는 여성

호기로운 남성적 성품의 황진이는 말할 것도 없고 고결한 ‘선녀’ 황진이는 못 남성들을 유혹하는 데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런데 후대 문헌으로 갈수록 황진이의 여성적 매력과 외모의 아름다움에 치중한 일화들이 변주되면서 황진이는 ‘유혹하는 여성’으로 형상화된다.

먼저 해당 일화들의 서사구조를 살펴보자.

임방의 『수춘만록』<양곡 소세양과의 사랑>

- ① 양곡 소세양이 젊었을 적에 여색에 미혹되는 자는 남자도 아니라고 호언했다.
- ② 송도의 명기 진이의 재색이 뛰어난을 듣고 벗들에게 30일을 진이와 살고 미련 없이 떠나올 수 있다고 약속하며 하루라도 더 머문다면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했다.
- ③ 송도에 도착해서 진이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한 달을 머물렀다.
- ④ 다음날 떠나야 할 기한이 되었을 때 진이는 태연하게 울시 한 수를 읊었다.
- ⑤ 소세양은 그 시에 감탄하여 ‘나는 사람이 아니다’고 하며 그대로 머물렀다.

구수훈의 『이순록』<벽계수 관련 이야기>

- ① 종실 벽계수는 황진이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고 자신하였다.
- ② 이 이야기를 들은 황진이가 벽계수를 개성으로 유인하였다.
- ③ 어느 달 뜬 밤, 말을 타고 있는 벽계수 앞에서 황진이가 ‘청산리 벽계수야’ 시조를 읊었다.
- ④ 황진이의 고운 음성과 아름다운 자태에 놀란 벽계수가 말에서 떨어졌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어느 선비의 후회>

- ① 진이는 송도삼절이다.
- ② 어느 날 밤에 진이가 비를 피하려 어떤 선비 집에 찾아들었다.
- ③ 선비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가 여우라고 여기고 도교의 경전 『옥추경』만을 외었다.
- ④ 닭이 울고 비가 개자 진이는 자신이 ‘황진이’라 밝히며 선비를 비웃고 떠났다.
- ⑤ 선비는 후회했다.
- ⑥ 황진이가 송도에서 지은 시가 있는데 어떤 이는 권첩의 시라고 한다.

서유영의 『금계필담』<벽계수 이야기>

- ① 황진이는 송도의 명기로 자색과 글재주가 뛰어났다.
- ② 종실 벽계수가 진이를 한번 보고자 하였으나 풍류 명사만이 진이와 친해 질 수 있었다.
- ③ 손곡 이달에게 피를 물으니 나귀를 타고 진량의 집을 지나서 누대에 올라 가야금 한 곡조를 타고 진량이 옆에 와도 못 본 체하고 나귀를 타고 취적교를 지나서도 돌아보지 말라고 알려주었다.
- ④ 벽계수가 이달의 말대로 거의 실행하였는데 취적교에 이르러 진량의 노래 ‘청산리 벽계수야’를 듣고 고개를 돌리다가 나귀에서 떨어졌다.
- ⑤ 진량이 웃으며 벽계수는 명사(名士)가 아니고 풍류랑일 뿐이라고 되돌아가 버렸고 벽계수는 부끄러워했다.

황진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벽계수, 지족선사, 소세양, 옆집 총각,

임제, 이언방, 이사중, 이생, 서화담<sup>16)</sup>, 엄수, 송도 유수 송공, 이달 등이다. 먼저 임제나 이달의 경우는 황진이와 직접적으로 대면한 일화가 아니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또한 『어우야담』 <금강산 유람 이야기>에서 황진이와 함께 금강산을 유람한 재상의 아들 이생이나 <선전관 이사중과 6년 계약 결혼한 일화> 속의 이사중, 허균의 「성옹지소록」에 등장하는 이언방 경우, 황진이가 지인지감으로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들과 함께 풍류를 즐긴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들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남성을 선택한 황진이의 주체적 성향을 돋보이게 해 주는 서사이지 황진이의 유혹이 드러나는 서사는 아니다. 또한 엄수나 송도 유수 송공 등은 황진이의 무성적이고 자연적인 궁극의 아름다움을 보증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유혹의 대상들은 아니었다.

유혹하는 황진이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곡 소세양과 벽계수 벽계수 이야기이다. 임방의 『수춘만록』 소재 <양곡 소세양과의 사랑>이나 구수훈의 『이순록』 소재 <벽계수 관련 이야기>, 서유영의 『금계필담』 소재 <벽계수 이야기>에 등장하는 소세양과 벽계수는 공통적으로 여인의 미색에 절대로 미혹되지 않겠다고 하거나 황진이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남성들이다.

소세양이나 벽계수 이야기의 서사는 비슷하게 전개된다. ‘양곡은 자신이 여색에 절대 미혹되지 않는다고 장담 → 30일 기한을 정해 놓고 황진이를 만남 → 헤어질 기한이 되었지만 황진이의 미색과 읊시 한 수에 감탄하여 그대로 머물’, ‘벽계수는 황진이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으리라 자신함 → 황진이를 만남 → 황진이의 미색과 시조 한 수를 듣고 놀라서 말에서 떨어짐’으로, 소세양과 벽계수 모두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고 장담하였

16) 서화담이 출현하는 최초 일화인 허균의 「성옹지소록」 소재 <남자 같은 성품의 진랑>에서는 황진이가 서화담의 학문을 인정하고 존경하여 함께 노닌 것이 강조된 것과 달리 후대로 내려갈수록 서화담 관련 일화는 황진이가 서화담을 유혹하려는 부분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후대로 갈수록 황진이에 대한 여성적 수사가 확대되면서 서화담의 인격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즉 경국지색인 황진이에게도 흔들림 없는 서화담의 높은 덕을 칭송하는 예화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으나 황진이의 아름다움을 대면하고는 모두 유혹에 넘어가는 서사 구조를 보인다. 양곡 소세양은 스스로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황진이의 재색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으며 벽계수는 황진이의 고운 음성과 아름다운 자태에 놀라 말에서 떨어지기까지 했다.

그런데 소세양과 벽계수 일화에서 황진이의 유혹에 첨부되는 것은 그녀가 읊은 율시와 시조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이가 ‘태연하게 읊조리는 율시 한 수’로 인해 소세양은 황진이에게서 더 머물게 되었으며 그녀가 읊은 ‘청산리 벽계수’ 시조는 벽계수가 말에서 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소세양은 시에 감탄하고 벽계수는 시조를 읊조리는 황진이의 고운 음성에 놀랐다는 지점에서 황진이는 미색뿐만 아니라 작시 능력도 뛰어난을 함께 드러낸다. 황진이의 시와 음악은 그녀의 외모적 아름다움에 아우라를 더하여 남성들이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화한다. 또한 작시 능력은 황진이의 유혹이 음란함에 이르지 않도록 해 주는 장치로서 작용한다. 황진이의 육체성을 ‘고결한 예술가적 작시 능력’으로 덮어서 유혹하는 황진이나 유혹을 당하는 양반 사대부들이 이것을 풍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 내에 두었던 것이다.

한편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황진이의 미색을 극도로 형상화한 일화가 이덕무 『청장관전서』 소재 <어느 선비의 후회>이다. 어느 날 황진이가 비를 피해 어느 선비의 집을 찾아들었는데 선비는 황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가 ‘여우’라고 생각해서 밤새 도교의 경전만을 외운다. 이에 황진이는 날이 개자 선비를 ‘비웃고’ 홀연히 떠났다는 이야기이다.<sup>17)</sup> 설화에서 유혹하는 여자는 흔히 여우로 형상화되곤 하는데 이 이야기에서 황진이를 여우가

---

17) 이 이야기는 유몽인의 『어우야담』 <성산월을 거절한 선비>와 내용이 매우 흡사한데, ‘성산월’이 ‘황진이’로 이름만 바뀌고 ‘요괴’가 ‘여우’로 변형된 것뿐이다. 시대상으로 『어우야담』이 『청장관전서』보다 150년 이상 앞선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성산월 이야기가 황진이 이야기로 변용 수용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후대로 구전되면서 황진이가 ‘아름다운 명기’에 대한 수사의 대표성을 띠게 되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황진이’의 시대적 사회적 소비 차원에서라도 가치를 탐구해 볼 만한 이야기이다.

둔갑했다고 생각할 만큼 황진이가 아름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일화는 지족선사 이야기와 같은 계열의 일화로 읽힌다. 지족선사는 황진이의 아름다움 때문에 오랜 면벽수도를 한순간에 깨서 ‘비웃음’을 샀다면, 어느 선비는 황진이를 여우라고 생각하고 도교 경전만을 집착적으로 외우는 모습에서 여성의 육체성에 크게 유혹되는 모습을 보여 또 다른 웃음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 3.4. 정치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인 여성

이 유형의 이야기는 황진이가 정치적 색채에 맞춰져 인용되거나 조선시대 성리학적 유교 질서 속에서 용인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일화들이다.

김택영의 『소호당집』, 『송양기구전』<sup>18)</sup>에 나타난 <황진(黃眞)>의 서사 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황진은 황진사의 서녀로 진사의 첩 현금이 병부교 아래에서 물을 마시다가 진을 배었다.
- ② 진을 낳을 적 이향(異香)이 3일 동안 있었으며 자라서는 자색이 아름다웠고 서사(書史)에 능통하였다.
- ③ 진이가 15~6세 때 이웃의 한 서생이 그녀를 사모하다가 병을 얻어 죽었다.
- ④ 서생의 관이 황진의 문 앞을 지날 때 말이 슬피 울며 나아가지 않자 진이가 자신의 저고리로 관을 덮으니 말이 움직였다.
- ⑤ 진이는 이로부터 창기의 길에 들어섰다.
- ⑥ 진이는 멀리 나가 노니는 것을 즐겼으며 시와 글이 맑고 빼어났다.
- ⑦ 당대의 누대와 산수를 두루 다니며 곡진하게 다 글로 표현하였다.

18) 『송양기구전』은 김택영의 단독 저서로, ‘황진’의 전이 부록에 실려 있고, 『소호당집』은 김택영의 문집으로 권 14 「개성잡사전」 <명기전>에 실려 있다. 이 두 책 속의 황진의 전(傳)은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체제가 약간 다르고 몇몇 글자들이 변화, 첨가되었다.

- ⑧ 판서 소세양을 송별하는 오연시가 있었는데 응대할 수 있는 이가 없었고 만월대에 올라 회고하는 시가 있으며, 초생달을 읊은 시가 있다.
- ⑨ 중국의 명창 이계란이나 설도와 비견될 만한 명창이다.
- ⑩ 황진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시신을 동문 밖에 버려 천하의 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으로 경계를 삼게 하라고 유언했다.
- ⑪ 집안 사람들이 그 말과 같이 했는데 한 남자가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하였다.
- ⑫ 진이의 묘는 장단(長湍)의 입구 정현(井峴) 남쪽에 있다.
- ⑬ 진은 종종 때 사람이다.
- ⑭ 평자: 황진의 맑은 생각과 빼어난 시는 인정할 만하다. 나머지 세상에 전하는 진의 다른 이야기들은 모두 망령된 것들이다.

김택영은 출생에서 죽음까지 황진이의 일생을 기록한 정통 한문 양식인 전(傳)<sup>19)</sup>의 형태로 황진이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자색이 아름다웠거나 서사에 능통하고 뛰어난 글솜씨를 보였다는 것, 빼어난 명창이었다는 것 등은 모두 앞서 출현한 일화들을 변주한 것이다. 다만 허균의 「성용지소록」에 의하면 황진이는 맹인의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황진사의 서녀로 기록된 점은 처음 출현한 내용이다. 황진이는 역사 인물이면서 공식 역사서에는 기록이 없고 주로 야담 및 패설류에 전해지다 보니 출생과 가계에 대해서 편찬자들이 근거한 자료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그 외 <황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일화는 한 서생의 상사병 이야기이다. 이는 황진사의 서녀로 태어난 황진이가 창기의 길로 들어선 것에 대해 개연성을 부여한다. 황진이가 15, 6세 때 이웃의 한 서생이 황진이 때문에 상사병으로 죽고 관이 황진이 집 문 앞을 지날 때 움직이지 않자 황진이가 자신의 저고리로 관을 덮으니 움직이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황진이의 여성적 아름다움이 치명적이고 파괴적임을 드러낸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한 남성을 상사병으로 죽게 하고 죽어서는 관이 움직이지 않게 할 만큼 남성에게 위협

19) 정통 한문 양식이기 때문에 다른 야담이나 잡기류보다 조금 더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여성의 아름다움은 남성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황진이는 남성들에게 위험 요소가 사라지는 공적 몸인 창기가 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을 부여했다.

황진이는 스스로도 자신을 경계하였다.

“내가 죽거든 천으로 싸지도 말고 관을 짜지도 말아 시신을 옛날 동문 밖 모래와 물이 만나는 곳에 내놓아라. 그리하여 땅강아지, 개미, 여우, 삼팽이들이 내 고기를 먹게 해 천하의 여자들로 하여금 나로써 경계를 삼게 하라.” 고 하였다. 집안사람이 그 말과 같이 하였다.<sup>20)</sup>

황진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한 유언이다. 자신의 시신을 엄도 하지 말고 관도 짜지 말고 동문 밖에 함부로 버려 천하의 여자들에게 자신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계 삼도록 했다. 이 진술 역시 남성의 위반을 부추기는 위험 요소를 황진이의 입을 빌려 경계하도록 한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앞서 살펴본 황진이의 다른 일화들, 예컨대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호협하고 남성들을 조롱하던 황진이 일화들을 떠올린다면 이렇게 이데올로기에 갇힌 황진이의 형상화는 낮설다.

또한 김택영은 ‘황진의 맑은 생각과 빼어난 시는 인정할 만하다. 나머지 세상에 전하는 황진의 다른 이야기들은 모두 망령된 것들’이라고 평하면서 황진이의 치명적 아름다움을 망령된 것들로 평가하며 경계하고자 한다. 김택영은 황진이의 뛰어난 자색, 뛰어난 글솜씨, 뛰어난 가창력 등을 인정하면서도 미색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에서 황진이를 표현한 것이다. 성리학적 이념이 가장 거세게 작용했던 조선 후기에 척당임협하고 이인적인 황진이 이야기, 사대부 남성을 거침없이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황진이 이야기는 남성 사대부 문인들에게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런 창기의 전(傳)을 짓는 것에 대한 혐의가 당연히 존재할 것이고 김택영은 그런 혐의를 『시경』을 통해 벗어난다. <황진>의 마지막 부분에

20) 장시광, 「황진이 관련 자료」, 『동방학』 3집, 1997, 413면.

‘외사씨가 말하기를 황진의 일은 추잡하여 족히 말할 것이 못 된다. 그러나 상복도 있지 않은가?(外史氏曰 黃眞之事 醜不足道 然盖不有桑濮乎)’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상복(桑濮)’은 『시경』에서 ‘상한복상(桑間濮上)’으로 음란한 풍속이 유행했던 땅이다. 김택영은 이러한 음란한 풍속이 유행했던 지역의 노래도 『시경』에 실어 경계로 삼고 가르침을 베푸는 것에 빗대면서 유희적인 창기의 진을 짓는다는 혐의를 벗어나고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이데올로기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김택영의 <황진>에 나타난 황진이의 형상화는 그 시대에 맞는 이데올로기적인 여성상과 타협함으로써 황진이가 조선의 남성 권력으로부터 용인되는 하나의 방식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허균과 유몽인의 일화 속에서 화려한 것을 좋아하던 황진이는 이덕형에 이르러서는 화려한 것을 싫어하게 되며, 김택영에 이르러서는 화려하게 살았던 자신을 경계하도록 하는 교훈적 유언을 남기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편자미상의『청야담수』<율곡, 송강, 서애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인 색채를 띤다. 이 이야기의 서사 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율곡, 송강, 서애에 대한 평가>『청야담수』

- ① 송도의 기생 진이는 얼굴은 경국지색이었고 글재주는 더욱 기이하였다.
- ② 화담 서경덕과 같은 시대에 살았으니 진이가 여자로 태어나고 천한 데서 난 것이 아까웠다.
- ③ 진이는 당세의 인물 율곡 이이와 송강 정철과 서애 류성룡을 평가하였는데 율곡은 참성인이요, 송강은 군자요, 서애는 소인이라고 평가하였다.
- ④ 율곡은 진이의 자색을 보고 불러들이지 않고 진이의 재주를 보고 불러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 ⑤ 송강 정철은 당당하게 진이의 자색을 보고 수청을 듣게 하였다.
- ⑥ 서애는 겉으로는 도덕군자처럼 행동하고 밤에 남몰래 잡자리를 명하였다.

황진이라는 경국지색에 대처하는 3명의 각기 다른 처신을 소개하면서 황

진의의 입을 통해 율곡은 참성인, 송강은 군자, 서애는 소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황진이는 율곡 이이나 송강 정철, 서애 류성룡과는 같은 시대의 인물이 아니며 실제로 이들 세 인물과 만났을 리 없다. 더구나 황진이가 이 세 인물에 대해 이런 평가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는 경국지색이며 글재주가 빼어난 황진이라는 이름을 빌려 이들 세 인물을 정치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율곡 이이와 송강 정철은 당파가 같은 서인이었고 서애 류성룡은 남인이었다. 서애 유성룡을 소인으로 평가한 것은 황진이와 상관없이 당파적인 평가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런 이야기는 황진이가 ‘경국지색’으로 널리 구전되고 있었음을 반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후대에 황진이의 미색은 가장 강력한 구전력과 환기력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 4. 맺음말 - 황진이에 대한 다양한 호명(呼名)과 환기력

이상으로 황진이 이야기가 실려 있는 중요 모본 자료의 서사구조를 정리하고 각각의 주제를 알아보았다. 고전 문헌들 속에 드러난 황진이 관련 일화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동소이하다. 다만 이야기의 화제적(話題的) 측면에서 보면 작가나 편찬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완전히 다른 황진이를 그려내고 있다.

가장 초기의 기록으로 보이는 허균의 「성용지소록」이나 유몽인의 『어우야담』에서 황진이는 ‘척당임협인(倜儻任俠人)’으로, 여성이지만 남성적인 인물로 주제화되고 있다. 이덕형의 『송도기이』에 가면 황진이의 여성적인 아름다움이 도드라지는데 기생이지만 기생스럽지 않은 다소 모순적인 모습, 꾸미지 않고 화장하기 싫어하는 무채색(無彩色)의 천연스러운 ‘선녀’ 이미지가 토픽으로 드러난다. 이덕형 이후 문헌 자료에서는 황진이의 여성적 아름다움이

집중 서술되면서 유혹하는 여인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한편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잣대로 스스로를 경계하는 황진이의 모습이 그려지는가 하면 황진이의 유명도가 당파적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이렇게 모본 자료들은 각각 황진이에 대한 토픽을 달리하는데, 서로 다른 토픽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본 텍스트들은 각각 서술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남자 같은 호방한 ‘척당임협인(倜儻任俠人)’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에도 구애되거나 구속받지 않는 황진이의 성격이나 금강산 유람 등의 일화를 배치하였다. 반면에 당시 전제되던 부덕(婦德)이나 열(烈)의 가치에 부합하는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외면을 치장하지 않는 고결한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서사 전개를 보여주었다.

한편 노래와 춤, 작시(作詩) 실력을 강조하기 위한 일화들을 서사의 전면에서 내세워 예술인으로서의 황진이 면모를 부각시키기도 한다. 어떤 황진이 이야기는, 사실성에 대한 담보를 피해가기 위해서 진량과 친척이었던 사람에게서 직접 들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 어떤 이야기는 황진이의 아름다움을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증하기 위해 끊임없이 권위자의 재가나 인정을 반복적으로 나열한다.

편찬자의 세계관과 시대정신에 따라 고전 속의 황진이는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재현되어 때로는 양면적인 모습이거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띠기도 한다. 때로 화장기 없는 요조숙녀로, 때로 변화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요부적인 느낌의 여성으로, 때로 협기(俠氣)를 지닌 남성적인 모습으로, 때로 사대부의 허울을 벗겨서 그들을 조롱하는 것을 즐기는 모습으로, 때로 애뜻한 사랑에 빠진 여인의 모습으로, 때로 천재 시인이거나 예인(藝人)의 모습으로 입체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부분 고전 작품 속에 드러나는 여성의 모습이 악녀·요부이거나 현모양처로 양분화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에 따라 고정된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것이 바로 황진이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되었다. 황진이는 협객, 이인, 명기, 절창, 절색, 천재, 선녀, 도인, 시인, 화려한 사람, 담박한 사람, 남성을 조롱하는 여성, 유혹하는

여인 등으로 다양하게 호명될 수 있다. ‘신사임당’을 호명할 때는 거의 일치되게 ‘부덕(婦德)’이라는 단일화된 이름이 존재하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신사임당이 황진이와 비교하여 결코 덜 유명하지는 않지만 황진이처럼 첨가, 수정, 변형, 확대, 재생산 되는 과정 없이 조선 시대의 단일한 여상상으로 고착되어 있다. 신사임당은 역사적 인물이라서 다른 여인상으로 변형이 어렵다. 한편 ‘춘향’ 같은 허구적인 인물일 경우도 각종 패러디물의 출현 가능성은 있지만 황진이만큼 다양한 호명은 불가능하다.

황진이는 역사와 허구 사이의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황진이는 역사적 인물이면서도 전기적 사료가 분명하지 않아서 오히려 허구적으로 재가공할 여지가 많은 인물이다. 완전히 역사적 인물도, 완전히 허구적 인물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이름에 고착되지 않고 다양한 호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팩트(fact)와 픽션(fiction)의 경계에서 시대별로 그 시대의 여성상을 추적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황진이에 대한 다양한 호명이 결국 현대의 문학적·문화적 환기력을 자극하여 끊임없이 황진이를 재탄생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은 아닐까 여겨진다. 우리 역사상에서 그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나 거대담론이라도 황진이만큼 많은 문헌들 속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우리 역사 인물 중에서 황진이만큼 소설, 영화, 뮤지컬, 만화 등으로 재창작되고 나아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양태로 호명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이렇듯 황진이라는 인물이 오랜 기간 끊임없이 소환될 수 있었던 것은 황진이 인물 자체가 지닌 입체적인 화소(話素) 덕분이다. 그리고 그 입체성은 1차적으로 황진이에 대한 다양한 호명에서 온다고 생각된다.

황진이에 대한 다양한 호명은 다양한 현대적 해석을 낳을 가능성을 갖게 된다. 고전 텍스트에서 보이는 황진이에 대한 다양한 호명은 또 다른 작가의 제3의, 제4의 황진이가 탄생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런 저런 이름으로 이미 호명했지만<sup>21)</sup> 여전히 미진한 다른 이름이 남아있고, 작가들은 그 남아

21) 예컨대 남성적인 척당임협인(倜儻任俠人)의 호명은 홍석중의 『황진이』에서 차용되고 있으며, 김탁환은 『나, 황진이』에서 ‘예인 황진이’ 면모를 부각시켰고, 전경

있는 이름을 통해 앞으로 또 다른 작품 창작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것이 바로 황진이 설화의 개방성이며 황진이 설화가 갖는 매력일 것이다.

---

린의 『황진이』는 페미니즘 관점에서 여성의 근원을 추구하는 신비스러운 아름다움을 간직한 ‘신녀, 황진이’를 호명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1차 자료]

- 김택영/김승룡 편역주, 『송도인물지』, 현대실학사, 2000.
- 유몽인/신익철 외 옮김, 『어우야담(於于野談)』, 돌베개, 2006.
- 유몽인/이월영 역주, 『어우야담』, 한국문화사, 2001.
- 이덕무/민족문화추진회, 『(신편 국역)청장관전서』, 한국학술정보, 2008.
- 장시광, 「황진이 관련 자료」, 『동방학』 3집, 1997.
- 허균/민족문화추진회, 『(신편 국역)성소부부고』, 한국학술정보, 2006.
- 한국고전종합 DB db.itkc.or.kr/ 이덕형(李德涇)의 『송도기이(松都記異)』 『죽  
창야사(竹窓野史)』 허균(許筠)의 『성소부부고』 24 「성옹지소록(惺翁  
識小錄) 下」

### [논저]

- 고명철, 「‘황진이 서사’를 다룬 남과 북의 역사소설, 그 허구적 진실」, 『시민  
인문학』 16, 2009
- 김경연, 「‘황진이’의 서사적 변형과 생산에 관한 고찰」, 『동남어문논집』 21,  
2006.
- 김미영, 「역사적 인물, ‘황진이’의 현대적 변모양상」, 『한국언어문화』 34,  
2007.
- 김병길, 「‘황진이’ 설화의 역사소설화와 그 계보」, 『동방학지』 147, 2009.
- 김병길, 「‘황진이’ 설화의 문학적 수용과 변주에 관한 담화적 연구」, 『국어교  
육』 132집, 2010.
- 김영미, 「『어우야담』의 일화 운용 방식」, 『기간과 유몽인의 산문』, 태학사,  
2008.
- 김재용 편, 『살아 있는 신화』, 「황진이」, 대훈, 2006.
- 김태봉, 「황진이 한시와 중국시 비교」, 『중국학보』 75, 2015.
- 노인숙, 「황진이 한시 연구」, 『청람어문교육』 23, 2001.

- 신원선, 「드라마 <황진이>의 대중코드 읽기」, 『민족문화논총』 35, 2007.
- 신익철, 「야담문학의 활용과 TV 드라마·영화의 창조적 상상력」, 『한국한문학연구』 37, 2006.
- 안남연, 「황진이의 재조명」, 『한국어문학연구』 49, 2007.
- 유육례, 「황진이의 연정시 연구」, 『온지논총』 41, 2014.
- 윤재철, 「황진이 연구」, 『청람어문교육』 12, 1994.
- 윤주필, 『한국의 방외인문학』, 집문당, 1999.
- 월터 J. 옹 지음/ 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 이능화, 『조선해어회사』, 동문선, 1992.
- 이순희, 「이병기 시조와 황진이 시조의 비교 고찰」, 『시조학논총』 40, 2014.
- 이현경, 「현대영화가 ‘황진이’를 소환하고 재현하는 방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5, 2007.
- 이화영, 「황진이와 설도의 한시에 나타난 세계 인식의 변별성」, 『우리문학연구』 52, 2016.
- 장만식, 「황진이의 작품 속에 내재된 트라우마와 욕망 탐색」, 『열상고전연구』 45, 2015.
- 정순희, 「조선후기 산문에 나타난 ‘俠’의 의미」, 『문학이론과비평』 30, 2006.
- 정영문, 「황진이의 시 세계」, 『동방학』 5, 1999.
- 조광국, 『기녀담 기녀 등장 소설연구』, 월인, 2000.

【Abstracts】

The study of subjects and motifs in the stories of  
Hwang Jinyi

– Focusing on the root materials

Kim, Youngmi

This thesis arranged narrative structures of important root texts with the stories of Hwang Jinyi and examined each subject and motif. The stories of Hwang Jinyi in classical literature from 1500s to the late Joseon Dynasty are practically the same in a content aspect but completely different Hwang Jinyi are described according to the writers or the compilers' intentions and purposes in a topical aspect. Hwang Jinyi in *Sungongjisorok* by Heo Gyun or *EowooYadam* (於于野談) by Yu MongIn which is thought to be the initial records is topicalized as a magnanimous and masculine person and extraordinary woman with distinguished talents (異人). Hwang Jinyi in *Songdogiyi* by Lee Deokhyeong(李德馨) shows antinomic images. She is a Korean geisha but the contradictory image that is not like a geisha, the achromatic-colored and natural image of a 'taoist fairy' who is not decorated and does not wear make up is shown as a topic.

Hwang Jinyi in the later bibliographic data after Lee Deokhyeong is expressed as the image of the woman who attracts noblemen as her physicality is strengthened and strips away their veils and sneers them. On the other hand, *HwangJin*, the Jeon (傳) by Kim TaekYeong, embodies Hwang Jinyi who is cautious about herself in the Confucian idea. Accordingly, Hwang Jinyi is not fixed as a name. She can be called

various names including a chivalrous woman, an extraordinary woman with distinguished talents, a famous geisha, a great singer, a woman of surpassing beauty, a genius, a Taoist fairy, an ascetic, a poet, a brilliant person, a refreshingly candid person, a woman who sneers men, a woman who attracts men, etc. These are Hwang Jinyi's essential characteristics and charms. And these various names become motive power which continues to recreate Hwang Jinyi in novels, soap operas, movies, cartoons, musicals, etc. in modern times by stimulating the literary and cultural ability to arouse principles, public opinions, and thoughts.

**Key Words** : Hwang Jinyi, magnanimous and masculine person, woman of unusual ability(異人), fairy, a tempting woman, various calling by name, awakening power

이 논문은 2019년 06월 2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07월 1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07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